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24.(화)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충주댐 찾아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댐 안전도 새롭게”

- 24일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준공식, 국민 생명·물안전 확보 최우선
- 보조여수로 신설로 초당 방류량 1.6배 확대, 남한강 유역 홍수 방어력 강화
- 하류 교량·친수공원 조성 병행, 물안전 기반 확충과 지역 상생·경제 활성화 추진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이 호남과 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 현장에 이어 충주댐을 잇따라 찾으며 ‘성장과 안전’ 모두를 아우르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1월 24일 충북 충주시 충주댐 보조여수로 좌안 공원에서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박소영 원주지방환경청장, 이종배 국회의원, 김진형 충주시 부시장,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업의 구축 경과를 공유하고, 기후위기 시대 물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큰비로 댐에 물이 한꺼번에 몰릴 때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존 댐에 여수로를 새로 만들거나 보강하는 사업이다.

이날 양승조 사장은 “기후가 달라지며 100년에 한 번 온다던 큰비가 해마다 찾아오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라며, “이번 준공은 산업화 시대에 구축한 물 인프라의 안전 기준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새로 쓰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승조 사장은 취임식에서 ‘국민 생명과 물안전 확보’를 첫 번째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후재난에 한발 앞서 대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준공은 산업화를 뒷받침해 온 기존 댐을 보강해, 달라진 기후에 대비하는 물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충주댐은 1985년 완공 이후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며 국가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기존 설계 기준을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안전 설비 고도화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극한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댐 인프라를 대폭 강화했다. 2013년부터 국고 3,004억 원을 투입해 터널식 보조여수로 3개와 수문 6개를 신설했다. 이번 준공으로 충주댐의 홍수 시 최대 방류 능력은 기존 초당 1만 7,500톤에서 2만 8,500톤으로 약 1.6배 늘었다. 수자원 시설의 추가 건설 없이 기존 시설을 보강해 남한강 유역의 홍수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준공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 운영 플랫폼 등 인공지능(AI) 물관리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주댐이 지키는 안전과 풍부한 물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도 이어간다. 사업 과정에서 조성한 신충원교로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공원과 산책로를 활용해 방문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가꾼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 충주댐 수변 공간을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로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사장은 “과거 기후에 맞춰 온 물관리 체계 전반을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새롭게 보강하여 물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댐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을 키우는 만큼, 그 물길을 지키고 가꿔 온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찾아 지방 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할 해법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담당 부서	수자원개발처 수자원건설부	책임자	부 장	강동원 (042-629-3150)
		담당자	차 장	김민철 (042-629-3154)
	한강사업처 사업관리1부	책임자	부 장	윤 균 (02-2150-0710)
		담당자	차 장	김민찬 (02-2150-07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4일 충북 충주시 충주댐 보조여수로 좌안 공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준공식을 열고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물안전을 위해 시행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경과를 공유했다.



[사진] 2. 24일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